



환경논평

환경감사의 개요(I)



박재주 / 본협회 사무총장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쓰고 버리는데까지 자원의 개발에서
제품의 종료까지 꼭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개의 프로세스의 감사는 종래 이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방법 기준등도 개발·개량되고 있다.

환경감사란 말은 최근 국제환경 규제와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인데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없이 영문으로 Environmental Audit, Eco-audit,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Review, Environmental due Diligence란 여러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다. 가 보니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감사가 혼동될 때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협의로서는 지역의 面 개발, 재개발을 할 때 사전 환경평가에 쓰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 넓은 의미로는 제품영향평가와 같이, 꼭 사전에 이루어 지는 것만이 아니므로 환경감사와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사항에서 기업전체의 환경감사를 생각할 때는 현시점에서 이념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과거의 환경감사는 개개의 공정이나 과제 개개의 공장감사이고 기업전체의 감사도 구체적으로는 이것들의 개개의 감사를 모우는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면에서 이들 개개의 감사없이 기업전체의 감사를 생각할 수 없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쓰고 버리는데까지 자원의 개발에서 제품의 종료까지 꼭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개의 프로세스의 감사는 종래 이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방법 기준등도 개발·개발되고 있다.

예를들면 제품안전에 관한 PS (Products Safety)의 발달등도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기술적 요소도 고려된다.

환경감사의 필요성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우림의 감소, 지구온난화등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에게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이런 현상에 의하여 생태계의 사이클이 위기에 직면하고 많은 생명종이 매일매일 멸종되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지구생태계의 일원인 인류에 있어서도 큰 위기를 주고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고 지금 인류의 존재, 생활양식이 바뀌며 특히 대량·대규모인 지구환경의 파괴자로서 기업체도 조직체에 대하여 내부적인 그 존재의식과 외부적인 관심이 높이고 있다.

이것들은 공해문제가 특정기업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사항들이다.

환경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기본이념, 행동원칙을 정하는 각종 현장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①팔데스원칙(1990년) ②로텔담현장(1991, 국제상공회의소(ICC)등 주최의 환경관리에 관한 세계산업회의(WICEMII)에서 채택된 현장) 이들 현장에는 그 내용, 의미는 꼭 같은 것 만은 아니지만 감사란 개념이 꼭 들어있다.

즉 기업주체성의 현장이 들어있다.

팔데스원칙은 미국의 사회투자 후오람을 모체로 한 민간조직 설즈(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 Responsible Economies)가 발표한 것이다.

이 조직은 환경보호에 열의가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로

서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리스크(위해)의 정보공개를 하고 사회적 책임투자란 차원에서 투자선기업을 선택하는 측도로서 환경감사를 고안하고 있다.

환경감사의 모델

1) 슈퍼파운드법

최근에 각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환경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슈퍼파운드법 아래 오염시설 정화책임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첫째는 시설(토지, 건물등)등의 매매와 기업의 M&A, 곧 금융기관의 융자, 또는 단보권 실행에 앞서 필요로 하는 환경감사이다.

슈퍼파운드법에는 현재의 소유자, 관리자라는 오염당시의 소유자, 관리자등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오염정화의 당사자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오염시설의 정화작업에 수반된다. EPA는 정화작업에 대하여 예비조사에서 복구작업에 까지의 단계를 규정하고 이 단계에 환경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술적 요소가 강하므로 첫째의 것에 대하여 언급한다.

2)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고안

197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감사로서 환경감사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것은 얼마간은 UNEP가 보고한 적이 있고 이것은 에코로지 콘시스(Ecologg Conscious, 생태계 의식)에

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당초에는 심각한 공해문제 대책에서 발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인가 기업윤리감에 기인된것이 그 시대적으로 그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를 일면 공해방지에서 환경감사로 변환된 것으로도 본다.

단, 1991. 4 채택된 ICC등 주최의 세계 산업회의의 로텔담헌장은 적절한 정보공개도 말하고 환경감사문제도 다루고 있다.

3) 엘무토연구소의 고안

여기서는 종래의 감사를 준거성 감사의 의미를 불히고 이것은 기계적 사고이고 피상적 환경주의에 기인된 것으로서 좀 다른 개념으로 에코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에코로지 인식에서는 또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환경감사에 어떠한 다른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관리수법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

4) EC 제안

1990년 12월, EC는 환경감사지령 초안원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일정조건(업종, 규모)를 만족하는 기업은 환경감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둘째는 자격을 인정한 환경감사인에 있어 첫째의 특징이 있는 의무는 임의 참가로 변하고 지령은 규칙으로 변하였다.

또, 에코라벨적 발상을 했으나 이는 앞으로의 문제이다.

외부에서의 환경감사 환경감사의 발표

기업을 외부에서 감사한다고 생각할때의 배경은 결코 일률적이지는 못하고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격한 시민단체등의 주장에 따라 기업의 입회검사(기업=악독자)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에코로지의 위기에 직면한 환경파괴의 가해자가 될 기업체에 대해서는 ①단순히 그기업체의 임의, 자주성에만 맡기지 않고 정보공개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실태를 잘 알리는 계기도 준다. ②이에따라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체도 환경보호에 노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외부의 환경감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자간의 중간적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는 환경감사를 말할 때도 있게 된다.

환경감사의 전망

이상에서와 같이 앞으로의 환경감사는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하는 과민적인 일반인의 입회검사적인 것 이외에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발표하게 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준거성 감사가 되고 기업이 자주적 기준에 따라 행하는 환경감사와 어느정도 조정이 될 것인가도 고려된다.

환경감사란 무엇인가

산업이 발달되고 더욱이 공업화되면서 특정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계 각국에 크고 작은 공해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보상하는데 수^(진)간에 걸쳐 재정과 인력이 소모한 국가들은 기업과 합심하여 공해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인하여 공해방지 기술이 향상되고 당초 이익제안주의에서 공해방지투자가 본질적으로 기업활동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이와 동시에, 오일쇼크에 따른 성에너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활동의 마이너스란 관점에서 기업활동의 프라스 요인화되고 이제는 경영전략을 기업의 환경문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공해방지에 있어서 기술자의 역할

여태까지 공해방지의 방법^이중요시 된 것은 기업활동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시민생활도 환경파괴 원인의 하나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경보전 대책으로서는 기업활동에 따른 부분적 제어가 있고 기업활동을 조정하는 환경보전대책은 주로 법적 규제와 행정적 지도란 정책적수단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현재 이러한 정책수단을 받아 구체적인 환경보전^수의 실시^수에 있어서

는 기술자의 역할이다.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해를 발생시킨다.

기업활동에 따라 환경영향을 법률이 정한 기준 이하로 억제하는 활동이 공해방지 활동이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기술자의 역할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영향의 측정, 감시, 공해방지시설의 유지관리운전등을 기술자가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조업에 따른 공해방지활동 이외도 공해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계, 시공도 기술자의 역할이다.

사업활동을 위한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을 예측한 적절한 공해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기술자의 직무이다.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소극적 공해방지의 한계

현재는 기술자가 실시하고 있는 공해방지활동은 주어진 경영자원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많다.

여태까지는 기업의 공해방지활동은 법이 정한 규제치와 예산과 생산계획등의 사업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기업의 환경보전 목표에 존속되고 공해방지활동에서 기업의 경영계획이나 사업목표의 범위는 약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하에서 될 수 있으면 환경영향이 적은 방법을 찾고자하며 그 사업계획을 시비하지

는 않는다.

이와같이 법적규제와 행정적지도를 주는 압력수단이라하고 기술자가 대책을 실시한다는 현재의 공해방지의 생각에서는 기술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경영 자체에 대해서는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적다.

그러나 이와같은 규제와 지도가 환경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장에 배출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환경보전이 달성되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고 또 환경기준이 달성 안되는 것도 많다.

최근 논의가 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산업이나 생활의 에너지에 기인되어 있고 그의 규제는 경제성장 또는 부의 분배에도 관계가 있고 규제를 하기도 어렵다.

공해문제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여태까지 잘쓰여져오던 모든 공해 문제가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로 사용되고 있다.

종전의 공해란 특정 배출원을 조정하는 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고 공해대책은 강구하는 데도 그것에 사용되는 자원은 무한하고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어느정도의 자원을 공해방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구환경이란 결코 공해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공해라고 생각한 극소적인 대중요법적인 대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가 인식한 것으로 이해한다.

공장과 같은 특종의 대규모 배출원이 환경을 오염한다는 것이 아니

고 시민의 일상생활도 환경오염에 가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고 인간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천연자원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다.

좁은 한 지역에서 공해대책을 하였어도 오염물질은 대기나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확산하므로 지구전체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지구환경문제의 본질이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데는 종전의 공해대책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결은 통용되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에서 기업윤리 시민의 선택을 소극적인 공해방지의 한계를 타개하고자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환경보전의 압력을 규제와 지도이외로 구하고자 한다.

기업활동은 환경오염을 수반하는데 이 오염의 원인은 기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형수하지만 오염에 의한 불경계는 희석, 확산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조금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래 환경파괴에 의한 불경계는 그 원인이 있는 기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는 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구환경에 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파괴의 불경계를 시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편리한 상품을 살때 그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환경에 큰 부하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본인이 환경파괴에 가담하게끔 느끼게 된다.

또한 그 사람 자신이 환경파괴에 대한 무엇인가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이와같은 인식이 시민간에 생활 습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이 시민은 소비자나 기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쪽으로는 기업측에서도 이러한 시민의식 변화를 받아 그 존재 목적을 종래의 수익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즉 시민층에서도 기업층에서도 법률적 규제 이상의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와같이 종전의 환경보전의 압력이 ①법률적 규제와 행정적 지도였던 것이 현재는 달라지고 ②시민의 선택, ③기업의 자발적 협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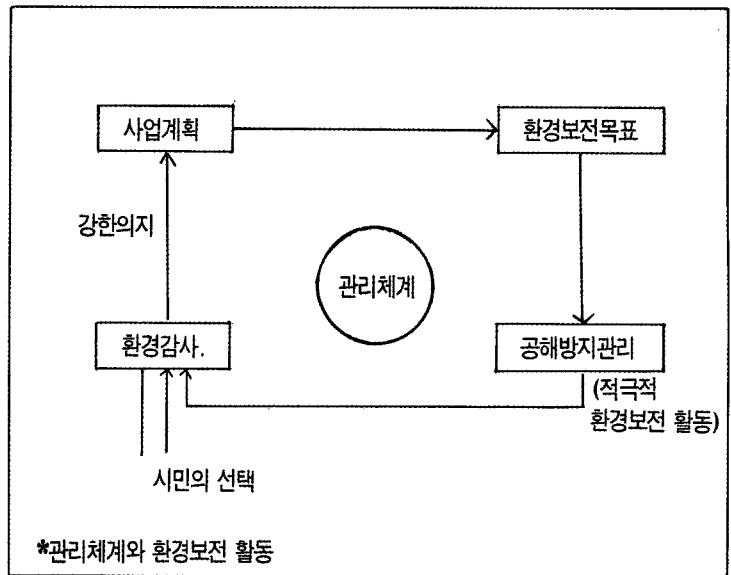
앞으로 기술자의 역할

현재 기술자는 주로 기업을 활동의 장으로 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술한 세가지 요소가 환경보전의 압력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기술자의 입장을 보면 환경감사는 종전의 규제지도등 소극적인 공해 방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으로 환경관리 기술의 전개와 적용이다.

종전의 공해방지 활동은 주어진 경영자원을 가지고 설정한 목표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보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적정한 이윤으로 공급한다는 전통적인 기업책임에 고려함과 환경보전



을 위한 경영자원의 분배등 경영계획에 관여하는 것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경감사이다.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환경감사가 경영계획에 관여한다는 것은 종래의 공해방지활동이 경영에 강하게 참여하지 않고 경영아래에 위치하던 것으로 그림과 같이 환경관리 기술을 경영계획에 강하게 참여시켜 관리체계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경영계획에 환경보전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현재 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업실시 결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을 변경도 가능한 기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타당성을 환경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가치와 경제가치의 통합

그러나 이와같이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시키는데는 환경영향을 경제가치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기술자의 할 일이다.

즉, 환경보전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풍부한 소비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시민의 본질적인 바램이고 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행동원리이다.

소비생활, 기업수익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달성되지 않을 때 쌍방의 타협점을 찾아서 형평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형평점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환경의 가치와 경제가치의 통일적 척도이다.

환경영향을 경제가치에 통합하는 것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공헌을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